

## 2. 삼국시대

백제의 지배에 들어간 순천지역의 상황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사실을 통한, 간접적인 추리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각각 3만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근초고왕 이전에는, 기원후 16년(은조 34) 마한 구장(舊將) 주근(周勤)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하여 병력 5,000을 동원한,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이 최고이다. 물론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이 대단히 소략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5,000과 3만의 병력동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백제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영역의 확대가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 확대된 영역은 현재의 전라도지역이며, 3만의 병력에는 전라도지역에서 동원된 병력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순천지역에서도 다른 전라도지역과 마찬가지로 백제 중앙정부가 병력을 동원하였다고 하겠다.

병력동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이 주목된다. 한성시대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지만 필자는 담로제라는 견해를 발표한 적이 있다.<sup>1)</sup> 이 견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담로는 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 중심의 지방통치조직이었다. 담로제는 3세기 구수왕대부터 사료에 나타나는데, 근초고왕대에 이르면 그 제도가 확립되었다. 아무래도 근초고왕대는 전남지역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였던 만큼 전라도지역까지 담로제가 실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담로제는 공주로 천도한 이후인 무령왕대에 22담로제로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무령왕대는 고구려에 쫓겨 공주로 천도한 이후 강력한 귀족세력을 제어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시기이다. 그런 만큼 22담로에는 국왕과 인척관계에 있었던 자제종족이 파견되었을 것이다.<sup>2)</sup> 순천 지역 역시 전라남도 동부지역 교통의 중심지였던 만큼 22담로 중 하나에 속했을 것이며, 무령왕의 자제종족 중 한 사람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사비시대에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은 5방제로 바뀌었다. 5방제에서는 방~군~성의 순으로 병력동원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러한 명령하달 순서는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도 동일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치구조라면 5방제에서 방은 군을 직접 통치하였으며, 군은 성을 직접 통치하였던 지역분할 통치방식이었다고 하겠다.

담로제에서 5방제로 전환된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백제 지방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한 상황의 산물이었다. 담로제에서는 담로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민에 대한 지배권과 수취권한을 중앙에서 직접 장악하였고 담로 이외의 지역은 여전히 지방토착세력이 수취권을 쥐고 있었다.

담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방관의 직접적인 통치권 행사는 사비천도 이후에야 가능했다. 5방제에서는 담로제 시기와는 비교가 안되는 다수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권력은, 현실적인 세력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토착세력에게 관등을 수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지방관들은 담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인구와 생산물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지방토착세력은 중앙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지방인에게 조부와

8) 김주성, 「백제 지방통치조직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재편」, 『탁사관논총』35, 1992.

2) 『향서』, 백제전과 양직공도에 보이는 “나라에 22담로가 있었는데 모두 자제종족에게 분거케 하였다.”에 근거하여 노중국은 「한성시대 백제 담로제의 실시와 편제기준」(『체명사학』2, 1991)에서, 무령왕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왕의 자제종족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요역을 부과하는 실무적인 일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앙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일률적인 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행정 단위의 규모가 균질성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 백제는 소국단위의 전통을 갖는 담로를, 전정호구를 기준으로 하여 차츰 군으로 편제하였다. 이에 따라 군의 하부단위였던 성 역시 일정한 전정호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사회의 재편은 수취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담로제에서는 간접징수방식이었으나, 5방제에서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개인과 개별 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였다. 5방제에서 순천지역은 남방성에 속했을 것이다. 남방성의 순천지역 토착세력 역시 백제의 중앙통치력이 강화됨에 따라,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변혁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